

건축의 이념

강 두 석

인류사(人類史)는 일찍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상호 대립한 과학, 예술,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가 지배자를 위한 것이었다. 애굽, 회람, 로마 시대에 각 시대의 찬란한 건축양식도 지배계급의 특권에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건축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번천하여 왔다. 이와같이 건축은 인간 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어 인간생활의 한 표현으로서 사회적 용기(容器)로서 혹은 「메카니즘」의 소산으로 또 하나의 예술품으로 대중 앞에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문명을 일으켜 놓은 매개체로 깊이 파고 들어 왔다. 인간은 건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누적된 생활을 좀더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려 하였고 또 심리적 감각 속에 영위하려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사회발전의 제법칙을 연구하며 동시에 건축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사명에 대한 구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제법칙과 건축의 사명을 연구함이 없이 이루어진 건축은 사회의 용기로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건축은 그 시대의 생활과 굳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축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매력에서부터 지극히 당연한 건물로 전문적 여러 문제에 이르기 까지 그 건축이 만들어진 시대의 제조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건축은 모든 종류의 요소,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민족적인 제요소의 산물인 것이다. 그 사회의 요소, 욕망을 대변하여 이에 복종하여 모든 요소를 융합하여 역학적인 힘과 재료, 지질 등 물질적 조건과 기후, 계절, 환경과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건축도 인간의 목적과 생활에 적응하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결과로 맺어져야 할 것이다.

탁월한 음악이나 무용을 건축에 비한다면 건축을 집단의 구성과 군체(群在)의 회열로 표현하면 움직이지 않는 무용이며 소리 없는 음악일 것이다. 건축은 무사적(無私的)이면서 가장 인생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리고 사회적 표현을 떠나서 계급적 규정을 떠나 시대를 지키는 무언의 계시자이기도 하다.

로마 건축은 교회를 탄생시켰고 르네상스 건축이 과학을 발전시켰다. 건축은 사회적 계시자로 위대한 시대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건축이었고 조락(凋落)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것도 역시 건축이었다. 새로운 욕구 없이 새로운 건축의 탄생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욕망은 반드시 새로운 건축을 창조하는 것이다.

애굽의 왕이 피라미트를, 회람의 승려가 신전을, 통일신라의 불교건축이 이것이다. 이지(理智)의 건축가 코르뷔제의 말을 들으면 건축은 정신의 소산으로 추상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회람신전의 「도릭」주(柱)는 수간(樹幹)을 모방한 형태이다. 회람에는 왜소한 소나무와 「오리브」 나무가 있을뿐이라고 또 건축이란 무엇인가? 비호물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창을 내고 구멍을 뚫어 끊어낸 돌을 문으로 하고 여기에 울타리를 둘러싸서 만든 헐거시대(穴居時代)의 동굴과 호수상에 수간(樹幹)을 기둥으로 풀을 엮어 만든 인류 최초의 집을 창작한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위대한 건축도 자연적 근원과 생활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혹 자연적 근원을 우주법칙 속에 귀착한다고 하면 긴 시간적 생활경험이 교감(交感)하여 자연과 인생과의 어느 감각이 인식되는 것이다. 수평선을 표시하는 직선과 일월(日月)을 따르는 원(圓), 낮과 밤의 동(動)과 정(靜), 이러한 만유(萬有)에 대한 예리한 감각은 어떤 욕구로 변하여 이것의 모방과 고안이 창의로서 그 자체의 본체(本體)를 교묘하게 형태를 인생에게 가장 통절(痛切)하게 장(裝)한 것이 건축 예술일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정신적 소산물로 더욱 요구하게 된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시는 마음의 반향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건축의 사상은 내적 반향이다.

그리고 이 내적(within)이라 함은 마을에 통하는 것이다. 지금 건축은 철차 완일(完一)에 가까와졌다 한다. 옛「古」와 새로운「新」, 마음은 생명 있는 실내공간 그 자체 속에 표현되었다. 완일(完一)의 건축에 있어서는 실내의 공간 그 자체가 전부이다. 실내 그것이 건축 자체로 볼 것이지 외관을 위한 외관, 외부와 내부가 두개의 구별로 되어서 반영되고 내부는 외부에 표현되어 서로 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료의 이해, 방법, 목적 이것이 조화가 되었을 때 「디자인」에나 실시상에도 건축의 형은 기능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 실내공간의 개념은 완일성(完一性) 제일주의이며 제일의 위대한 자원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형(形)이라 하는 일반적 의미의 기반이다. 환언(換言)하면 유기적 건축물은 그 부지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대지 자체는 항상 건물 자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본적 부분이 된다. 이것이 유기적 건축이 근본으로 대자연 중에 응립하는 수목과 같이 위엄 있는 건축이 되는 것이다.